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실용음악 전공 수업에 미치는  
영향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수 연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실용음악 전공 수업에 미치는  
영향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수 연

# 인 준 서

김수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실용음악 전공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교과목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해 음악관련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전체·전공별 그리고 대학별로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 35명, 여자 37명 총 72명의 학생들 중 기타 11명, 건반 17명, 베이스 8명, 드럼 8명, 보컬 28명 이었으며, 고등학교 전공과목 시창청음, 음악사, 음악이론(화성학), 컴퓨터음악(미디), 연주(합주), 전공실기 총 6개의 과목 중 음악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과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50% 이상이었고, 음악사 과목만 50% 이상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전공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악이론 과목만 유의확률 .061으로써 유의수준 .05보다 크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있다고 나왔고( $p>.05$ ), 다른 5개의 과목들은 전공별 차이가 없다고 나왔다. 음악이론 과목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모든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실력향상이 아닌 전혀 배우지 않은 학생들 보다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부정적으로 대답한 과목의 경우에는 수업이 실기 위주인 입시에 치우쳐 있어 음악사와 같은 이론 과목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전공과목 6개를 대학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

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만족도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 < .01$ ). 전체적으로 A'대학과 B'대학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대답이 많은 반면에 C'대학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전공과목 6개 중 음악사 과목만 전체 중 50%이상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전공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과목 중 음악이론 과목만이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있다고 나왔고( $p > .05$ ), 다른 과목은 전공별 차이가 없다고 나왔다. 음악이론 과목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과목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나왔으며, A'대학과 B'대학은 긍정적인 대답이 많은 반면에 C'대학은 부정적인 대답이 많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실용음악과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음악적 경험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음악적 지식을 향상 시키는 것이 아닌 입시 위주의 수업에만 치중되어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실용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용음악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이에 관한 연구와 자료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실용음악 관련 연구와 자료들은 대학에 치우쳐 있으며 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의 수는 적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자 하며, 그로인해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이 지금보다 더 발전되기를 바란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2
3. 연구의 제한점 .....	2
4. 선행연구고찰 .....	2
<b>II. 이론적 배경</b> .....	6
1. 실용음악의 정의 .....	6
2. 실용음악 교육의 필요성 .....	7
3.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 .....	9
4. 우리나라 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 .....	14
5. 연구대상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조사 비교 .....	20
<b>III.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b> .....	25
1. 연구방법 및 절차 .....	25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27
<b>IV. 결론 및 제언</b> .....	6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설문지)	

## 표 목차

<표-1> 2014년 현재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현황 .....	15
<표-2> 각 학교의 전공 교과목 비교 .....	22
<표-3> 설문지 문항 구성 .....	25
<표-4>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이유 .....	27
<표-5> 전체·전공별 전공실기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 .....	28
<표-6> 전체·전공별 전공이론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 .....	29
<표-7> 전체·전공별 보통교과와 음악 전공 교과의 수업 비율 만족도 ..	30
<표-8> 전체·전공별 실기와 이론의 비중 .....	31
<표-9> 전체·전공별 음악 전공과목으로 인한 음악적 지식 향상 여부 ..	32
<표-10> 전체·전공별 시창청음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33
<표-11> 전체·전공별 음악사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35
<표-12> 전체·전공별 음악이론(화성학)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36
<표-13> 전체·전공별 컴퓨터음악(미디)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37
<표-14> 전체·전공별 연주(합주)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38
<표-15> 전체·전공별 전공실기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40
<표-16> 전체·전공별 고등학교 전공 수업이 대학 수업에 미친 영향 여부 .....	41
<표-17> 전체·전공별 가장 도움이 된 과목 여부 .....	42
<표-18> 고등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는 과목 .....	43
<표-19> 전체·전공별 사교육기관에서 음악 경험 여부 .....	45
<표-20> 전체·전공별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 .....	45
<표-21> 전체·전공별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의 도움 여부 .....	46
<표-22> 각 학교별 전체인원과 전공인원수 .....	47

<표-23> 학교별 전공실기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 .....	48
<표-24> 학교별 전공이론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 .....	49
<표-25> 학교별 보통교과와 음악 전공 교과의 수업 비율 만족도 .....	50
<표-26> 학교별 실기와 이론의 비중 .....	51
<표-27> 학교별 음악 전공과목으로 인한 음악적 지식 향상 여부 .....	52
<표-28> 학교별 시창청음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53
<표-29> 학교별 음악사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55
<표-30> 학교별 음악이론(화성학)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56
<표-31> 학교별 컴퓨터음악(미디)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57
<표-32> 학교별 연주(합주)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58
<표-33> 학교별 전공실기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	59
<표-34> 학교별 고등학교 전공 수업이 대학 수업에 미친 영향 여부 ...	60
<표-35> 학교별 가장 도움이 된 과목 여부 .....	61
<표-36> 학교별 사교육기관에서 음악 경험 여부 .....	62
<표-37> 학교별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 .....	63
<표-38> 학교별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의 도움 여부 .....	6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9년 서울예술대학에서 처음으로 '실용음악과'가 개설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용음악 교육이 시작되었다. 현재 여러 대학과 대학원에 실용음악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고, TV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용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수시모집 결과에서도 실용음악과의 경쟁률은 단연 눈에 띈다.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의 경우 모집 인원 28명에 4270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52.5:1이었으며, 2014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최고 경쟁률 또한 471.4:1로 실용음악과에서 나왔다.<sup>1)</sup>

이렇듯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는 많고 실용음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서울의 아현직업학교에 최초로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었다. 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은 미미하지만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용음악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도 늘어나고 여러 예고의 음악과나 영상예술 관련 학교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용음악 전공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이에 관한 연구와 자료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실용음악 관련 연구와 자료들은 대학에 치우쳐 있으며 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너무 적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실용음악 전공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교과목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

1) 수백대1의 경쟁률, 꿈은 멀고 현실은 가시밭. <한겨레 신문> 2013.10.21 19:59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07931.html> (2014.3.3. 20:00)

## 2.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전공실기·전공이론·보통교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음악 전공과목을 통해 음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셋째,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 수업이 대학 실용음악 전공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고등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 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낸 것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실용음악과가 개설 된 고등학교 중 대부분의 학교가 대학 진학률보다 취업률이 높아서 음악관련 전공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다.

## 4. 선행연구고찰

이 연구를 위해 살펴 본 실용음악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강모의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sup>2)</sup>에서는 각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2·3·4년제 및 외국대학이 표방하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실용음악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아영의 “실용음악 교육의 실태 비교 분석 및 발전방향-실용음악계열 학과의 대학을 중심으로-”<sup>3)</sup>에서는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를 네 가지(고등학교,

---

2) 김강모(2011).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로 분류했고, 실용음악계열 대학별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김진수의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sup>4)</sup>에서는 먼저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고등학교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실용음악 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과 발전적 제안을 찾아보고,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선발요강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알아보며, 앞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박철홍의 “실용음악 교육기관의 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sup>5)</sup>에서는 실용음악 교육기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학과에 대해 표로 나열한 후 설명이 나와 있다.

양은주, 김선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분석”<sup>6)</sup>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실용음악 교육의 의미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나와 있으며,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들어 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며,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네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경분의 “1920-30년대의 실용음악”<sup>7)</sup>에서는 실용음악의 개념에 대해 나와 있고, 실용음악의 문화사회적 배경, 실용음악의 예술사적 의미와 실용음악의 한국적 의미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 3) 김아영(2012). **실용음악 교육의 실태 비교 분석 및 발전방향 -실용음악계열 학과의 대학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4) 김진수(2011).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 5) 박철홍(2012). “실용음악 교육기관의 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음악과민족**, 제44호. pp.189-218.
  - 6) 양은주, 김선희(2009).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분석”, **음악이론연구**, 제14호. pp.61-89.
  - 7) 이경분(2002). “1920-30년대의 ‘실용음악’”, **음악과민족**, 제23호. pp.44-62.

이에스더의 “실용음악 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sup>8)</sup>에서는 실용음악 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실용음악의 개념, 실용음악의 분류, 실용음악학과 개설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실용음악학과의 교육운영에 대해 과목을 이론·실기 과목으로 분류해 표로 나타냈다. 다음으로 교과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용음악학과 4년제 대학 15개와 2·3년제 대학 15개를 선정하여 이 학교들의 교과목 운영 실태와 교수진에 대해 설명 하고, 교재 및 전문 서적에 대해 조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실용음악 교육의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나와 있다.

조성기의 “예술고등학교 음악전공교육의 활성화 방안”<sup>9)</sup>에서는 예술고등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징을 파악하고, 음악전공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 및 강사,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와 요구 및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면담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여 제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요구 조사와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승희의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sup>10)</sup>에서는 1990년대에 개설된 국내 2·4년제 실용음악학과 3곳을 선정하여 커리큘럼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의 JAZZ 작곡학부 3곳을 선정하여 연구를 하였고, 설문지를 통해 실용음악학과 전공자들의 인식조사를 하였다.

홍연화의 “실용음악과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과 발전방향의 연구”<sup>11)</sup>에서는 실용음악의 개념과 실용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실용음악 교육의 흐름에서 미국의 실용음악 교육과 한국의 실용음악 교육을 조사 하였다. 다음으로 실용음악과 개설 고등학교의 현황을 알아보고 고등

8) 이에스더(2008). “실용음악 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제7호, pp.133-146.

9) 조성기(2012). “예술고등학교 음악전공교육의 활성화 방안”, 음악교육공학, 제14호, pp.41-60.

10) 한승희(2013).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1) 홍연화(2008). 실용음악과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과 발전방향의 연구-고등학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해 설명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기타 고등학교 과정으로 9개의 학교를 나눠 연혁 및 특징,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제언에서는 교육과정, 수업내용 및 교재개발, 교사강사 수급과 예산의 지원, 진로 지도에 대해 나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실용음악에 관련 된 논문은 대부분 대학교과에 치중되어 있었다. 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에 대해서는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의 현황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 전부였고,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육과정이 대학에서의 전공 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선행연구처럼 교과과정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좋지만 교과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이 대학 수업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전공 수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연구결과가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실용음악의 정의

실용음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후기 낭만파와 인상파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지나친 기교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실용음악’이라는 용어는 20세기경에 힌데미트(Paul Hindemith)의 게브라우흐스무지크(Gebrauchsmusik)에서 시작한다. 사전에는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작곡가, 연주가, 청중 사이의 공감과 소통, 아마추어 연주가의 실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작곡된 음악을 의미하며 후기 낭만파의 ‘예술을 위한 예술’에 대한 반동으로서, 20세기 초에 제창된 것이다. 그 특징은 단순·명쾌하고 연주가 용이하여 어느 성부나 동등한 관심을 가지며, 악기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앙상블을 위한 음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각 대학들이 사용하는 실용음악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아마추어를 위한 쉬운 음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의 목적을 가진 전문적인 음악들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즉 영상음악·무대음악·기능음악·대중음악 등 연주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방식의 예술음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악을 총칭한다.<sup>12)</sup>

지금 사용되는 실용음악(Applied Music)이란 용어는 1988년 서울예대에서 한국 최초로 ‘국악과 2부’가 개설되면서 대중음악교육을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대중음악의 또 다른 명칭으로 실용음악이라는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다음 해인 1989년에는 ‘실용음악과’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실용음악은 예술성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음악이다. 따라서 실용음악은 기존의 대중음악에 실용적인 측면을 더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박철홍(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음악과민족*, 제23호. p.63.

결과적으로 실용음악이란 20세기 현대 음악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순수 음악(클래식), 국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음악 즉 영상음악(영화음악, 주제음악, 배경음악, 광고음악, 게임음악 등), 컴퓨터음악 그리고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부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모든 종류의 음악이나 음악관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2. 실용음악 교육의 필요성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안방에서 혹은 손 안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21세기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문화의 세기로 접어들면서 문화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예술은 K-pop과 한류의 열풍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의 상품으로써 그 가치가 커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창의적인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sup>13)</sup>

순수 음악의 경우 현재 전국에 20여개가 넘는 예술 고등학교와 6개의 예술중학교에서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예술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전문 음악인이 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비해 실용음악 교육은 1998년도에 아현직업학교에서 위탁교육과정으로 실용음악 교육을 시작했고,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대학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순수음악에서 벗어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음악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음악은 실용음악 혹은 대중음악, 생활음악, 포스트모던 음악, 테크놀로지 음악, 멀티미디어 음악, 컴퓨터 음악 등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자리 잡고 있다.

---

13) 조성기(2012). “예술고등학교 음악전공교육의 활성화 방안”, **음악교육공학**, 제14호, p.41.

특히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영상음악, 광고음악, 게임음악, 사운드 디자이너, 음향전문가, 레코딩 엔지니어 등 실용음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규모도 동시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sup>14)</sup> 실용음악 교육은 전문적인 실용음악인이 아닌 일반 대중들을 위한 실용음악 교육으로서의 역할이다. 과거에는 특수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음악 인재들이 연주를 맡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 이들은 그 연주를 감상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재능이 있어 연주자로 활동하는 전공자 뿐 아니라 재능이 없이도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이들이 듣기만 하는 음악에서 스스로 연주하는 음악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 즉, 연주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고 음악의 전문가보다는 취미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졌다. 절대다수의 취미나 교양음악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와는 유별한 연주내용이 필요하게 되며, 실용음악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실용음악은 크게 성인과 아동의 음악으로 나눌 수 있고, 노년의 실용음악, 장년층의 실용음악, 청소년, 아동, 유아의 실용음악 교육으로 세분 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에게 더 알맞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야 실용음악 교육의 의의와 기본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용음악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이 아닌 교육내용으로서의 커리큘럼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지도교사의 음악적 자질 뿐 아니라 능동적인 지도력이 함께 요구 되는 쉽지 않은 교육 분야인 것이다.

실용음악은 이제 영화, 컴퓨터게임과 더불어 이 시대 문화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제는 더 이상 실용음악을 하위 저급 문화라고 무시해 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실용음악과 관련 된 직업들 또한 그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해서 음악적 활동을 고려하여 교육을 해

---

14) 홍연화(2008). 실용음악과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과 발전방향의 연구-고등학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5.

야 하는데도 현재 대학에서의 실용음악 교육과 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 실용음악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이 시대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필요한 인재들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실용음악 교육은 중요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이제는 실용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흡한 실용음악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3.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

#### 3.1 미국의 실용음악 교육<sup>15)</sup>

미국에서 실용음악 교육론이 대두되었던 원인은 음악교육과정에 많은 민족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방법 때문이었다. 즉,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각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새로운 음악교육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음악에서 하나의 특정한 양식을 고집하던 것에서 음악양식의 다원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음악 교육 연구는 1963년 시작되어진 C.M.P.(Contemporary Music Project)<sup>16)</sup>와 1965년 로널드 토마스(Ronald Thomas)교수에 의해 개발된 M.M.C.P.(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gram)<sup>17)</sup> 그리고 1967년에 열렸던 탕글우드 심포지엄(Tanglewood Symposium)<sup>18)</sup> 이 있었다. 미국의

---

15) 김진수(2011).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김창대(2013). 실용음악 교육과정 현황에 관한 연구-실용음악전공 개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철홍(2009). "실용음악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연구: 버클리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과민족. 제36호, pp.353-390. 요약정리하였다.  
16) C.M.P는 1963년 공립학교에서 음악의 창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발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포괄적 음악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갔다.  
17) M.M.C.P 는 포괄적 음악교육의 입장을 주장한 이론으로서 근본사상은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보다 포괄적인 음악성을 기르자는데 있으며 학생들의 창조성을 개방하자는데 교육전략의 핵심이 있다.

대표적 실용음악에 관한 연구들의 교육이론은 모두 포괄적 음악교육의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음악을 교육, 교과내용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실용음악 교육과정의 모델이 된 미국 버클리음악대학은 1945년에 설립하여 현재 약 4,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약 460여명의 교수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음악 전공은 세분화 된 12개의 전공(작곡, 현대음악작곡 및 제작, 영상음악, 재즈 작곡, 음악사업·매니지먼트, 음악합성·전자음악, 음악치료·음악치유, 음악 교육, 음반 제작 및 기술, 전문 음악, 공연, 대중음악 작곡)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전공자들이 화성학, 청음, 앙상블, 서양음악사 등 28개 과목 중 선택하여 음악기초이론과 다양한 음악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각각 전공의 특성에 맞게 전공과목을 보다 세분화해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학할 당시에 치르는 이론 시험을 통해 개인의 과목별 단계를 차별화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업의 효율성을 더해주고 있다.

버클리음악대학의 교육과정은 그들이 한 사람의 음악인을 배출하기 위해 전공필수 교과목과 실기 외에 무계중심을 떨어뜨리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역사·영어·물리·철학 등과 같은 비 음악적 교과과정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강요하는 점이다.

이렇듯 대중문화 관련 음악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위상정립과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인접학문과의 소통, 나아가 새로운 산물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다른 비 음악교과과정을 더욱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

18) 탱글우드 심포지엄은 전 미국 음악교육자 협의회(MENC)가 여러 단체의 협조를 받아 개최한 심포지엄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음악”이라는 광범위한 문제를 조사하고자 했으며, 10대의 음악 혹은 유행음악의 문제에 대한 논리적 고찰을 하도록 하였다.

### 3.2 한국의 실용음악 교육

국내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는 1990년대에 대학에 ‘실용음악학과’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전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를 보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UN연합군의 참전으로 미군의 팝송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팝송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sup>19)</sup> 팝송으로 인해 새로운 음악과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나면서 학원들도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1957년에는 종로에 세기음악학원이 문을 열었고, 뒤를 이어 종로음악학원 등 관인학원들이 팝송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음악 교육은 여전히 클래식에 치중되어 있었다.<sup>20)</sup>

1970년대에 들어 포크음악이 성행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통기타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통기타 가수들이 배출되었고, 통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기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기타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소규모로 개인강습을 하는 기타 판매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점차 실용음악이 발전하게 되면서 기타 이외에 다양한 악기들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생겨났지만, 대부분이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입시와 연계되는 클래식 음악교육과 달리 실용음악 교육은 취미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용음악이나 실용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만한 교육기관이 거의 없었고, 결정적으

19) 김진수(2011).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p.13.

20) 김강모(2011).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p.16.

로 대학에서 실용음악학과의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실용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유학밖에는 없었다. 실용음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실용음악학과에 관련된 교육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실용음악학과가 생기면서 부터이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최초로 실용음악 교육을 한 곳은 1987년 11월 서울예술전문대학(현 서울예술대학교)에서이다. 서울예술전문대학에 국악과2부에 실용음악전공이 처음 개설되고 1989년 3월에 국악과가 1부 국악과, 2부 실용음악과로 승격된다.<sup>21)</sup>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의 실용음악과 본래의 취지는 2년제 대학으로는 4년제 대학의 국악과와 경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국악과의 활성화를 위해 실용음악과 크로스오버 된 국악을 교육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실용음악과 재즈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sup>22)</sup> 이후 본격적으로 2·4년제 실용음악 전공을 포함한 음악학과 또는 실용음악학과와 더불어 중·고등학교와 대학원 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2년제 대학으로는 1994년에 수원여대<sup>23)</sup> 생활음악과 대중음악 전공, 부산예술대학<sup>24)</sup> 음악과에 실용음악 전공, 1996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sup>25)</sup> 음악과정 실용음악과, 1997년 숭실대학교 사회교육원<sup>26)</sup> 음악과정(현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콘서바토리) 실용음악과 개설되었고, 1998년에 동아방송대학(현 동아방송예술대학교)<sup>27)</sup>에서 영상음악과가 개설되면서 실용음악관련의 대학들이 전국에 본격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4년제 대학으로는 1996년 대구예술대학교 음악과에 실용음악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2011년 교회실용음악과(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21) 서울예술대학교 연혁 <http://www.seoularts.ac.kr> (2014.5.7)

22) 황정희(2007).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 -입시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p.10.

23) 수원여자대학교 연혁 <http://www.swwu.ac.kr> (2014.5.7)

24) 부산예술대학 연혁 <http://www.busanarts.ac.kr> (2014.5.7)

25)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연혁 <http://icel.mju.ac.kr> (2014.5.7)

26)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연혁 <http://lle.ssu.ac.kr> (2014.5.7)

27)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연혁 <http://www.dima.ac.kr> (2014.5.7)

을 신설하였다<sup>28)</sup>. 1997년에는 한서대학교<sup>29)</sup>에서 영상음악과(현 실용음악과)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전문대학의 학과 개설과는 이 유가 조금은 달랐다. 대구 예술대학교의 경우 그 전신인 클래식 작곡과를 유지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대중음악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 시키기 위함과 함께 기존에 있던 작곡 전공의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자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작곡 전공을 실용음악 전공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한서대학교 영상음악과의 경우 영상예술음악(영화음악, TV드라마음악, 광고음악 등)을 제작하는 전문영상음악 작곡가 및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개설하였다. 하지만 이곳 역시 지방에서 작곡가 및 엔지니어만을 꿈꾸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점차 보컬, 기악 등을 함께 모집하면서 여느 대학들의 실용음악 관련 학과들과 비슷한 틀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30)</sup> 1998년에는 동덕여자대학교<sup>31)</sup>에서 실용음악과를, 청운대학교<sup>32)</sup>에서는 영상음악과를 개설하였다. 2000년에는 경희대학교<sup>33)</sup> 수원캠퍼스 예술디자인 학부에 서양고전 음악, 대중음악, 동양전통음악,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의 신기술을 결합, 21세기 신 음악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포스트모던 음악 전공이 생겼으며, 2001년에는 단국대학교<sup>34)</sup> 생활음악과가 개설되어 학과 내에 뮤지컬 전공을 두어 실용음악 전공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2000년도에 동덕여자대학교에 공연예술대학원<sup>35)</sup>이 신설되면서 실용음악 전공과정이 개설되었고, 같은 해에 이화여자대학교<sup>36)</sup>에서는

28) 대구예술대학교 연혁 <http://www.dgau.ac.kr/> (2014.5.7)

29) 한서대학교 연혁 <http://www.hanse.ac.kr> (2014.5.7)

30) 박선영(2007). **대학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p.17.

31) 동덕여자대학교 연혁 <http://www.dongduk.ac.kr> (2014.5.7)

32) 청운대학교 연혁 <http://home.chungwoon.ac.kr> (2014.5.7)

33)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혁 <http://artndesign.khu.ac.kr/08/main.php> (2014.5.7)

34) 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 연혁 <http://hompy.dankook.ac.kr/music> (2014.5.7)

35)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연혁 <http://grad.dongduk.ac.kr> (2014.5.7)

36)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연혁 <http://performarts.ewha.ac.kr> (2014.5.7)

피아노교수학 전공과 음악공학 전공의 실용음악대학원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클래식 음악을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을 교육목표로 일반적인 실용음악과에서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1년에는 단국대학교에서 대중문화예술대학원<sup>37)</sup>을 신설하면서 대중음악 제작자와 대중예술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같은 해에 동의대학교에서도 영상정보대학원<sup>38)</sup>을 신설하면서 멀티미디어 첨단 기기와 컴퓨터를 활용한 레코딩·엔지니어링 분야와 영상관련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4년에는 동아대학교<sup>39)</sup> 예술대학원에서 기존의 음악학과를 컴퓨터실용음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5년에는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sup>40)</sup>에서 퍼포밍 아트학과를 신설하여 실용음악 전공과 에듀씨어터 전공을 두고 있으며, 같은 해에 중부대학교에서도 인문 산업대학원<sup>41)</sup>에 실용음악학과를 개설하였다.<sup>42)</sup>

약 20여년 만에 국내의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는 급속도로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과 설립이 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과들의 개설로 인해 실용음악은 문화산업과 대중문화의 중심축이 되기 시작하였고, 초창기 외국음악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현재는 생산자의 입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 4. 우리나라 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처음 대중음악 교육을 시작한 곳은 1998년 일반계 고교의 위탁교육 기관인 아현직업학교(현 아현산업정보학교)이다. 아현직

37)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연혁 <http://hompy.dankook.ac.kr/gdaa> (2014.5.7)

38) 동의대학교 영상정보대학원 연혁 <http://mvt.deu.ac.kr> (2014.5.7)

39) 동아대학교 연혁 <http://www.donga.ac.kr> (2014.5.7)

40)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혁 <http://gskh.khu.ac.kr> (2014.5.7)

41) 중부대학교 대학원 연혁 <http://www.joongbu.ac.kr/grad.do> (2014.5.7)

42) 황정희(2007).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 -입시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p.13.

업학교의 생활음악과는 1998년 일반 직업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1년 위탁과정으로 학과가 개설되었으며, 다음 해인 1999년에는 2년 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통합과정이 신설되었다. 2000년부터는 학과의 명칭이 실용음악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시 고3과정의 1년 위탁교육만 운영하고 있다.<sup>43)</sup>

그 후 2000년에는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현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과를 개설하였다. 2001년에는 김천예술고등학교와 리라컴퓨터고등학교(현 리라아트고등학교)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었다. 2004년에는 한국예술고등학교가 실용음악과를 개설하였고 2006년 서울실용음악학교, 2008년에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010년에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었고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 4.1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현황

전국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고등학교는 <표-1>과 같다.

<표-1> 2014년 현재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현황

학교구분	학교이름	음악과 개설	기타
특수목적고등학교	경남예술고등학교	2003년	색소폰과 실용작곡 전공 포함
	김천예술고등학교	2001년	작곡(컴퓨터음악) 포함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2000년	

43) 황정희(2007). 상계서. p.13.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2008년	관악포함
		울산예술고등학교	2007년	작곡(미디어)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2001년	실용음악거점학교 함께 운영(합주반,작곡반,보컬반),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3학년 재학생만 입학가능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2000년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전공 포함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2003년	
대안학교	비인가	마마세이실용음악고등학교	2011년	작곡, 미디어,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중2~고1나이 까지 모집)
		서울예술대안학교	2013년	작사·작곡 전공 포함
		아이머스실용음악고등학교	2011년	작·편곡 포함
	학력 인정	서울실용음악학교	2006년	미디어 작·편곡, 색소폰 포함
		한국예술고등학교	2004년	재즈피아노, 재즈트럼펫, 재즈트럼본, 재즈오보에, 재즈바이올린, 재즈콘트라베이스, DJ, 실용댄스, 실용작곡, 뮤지컬

				포함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2010년	
일반계고교 위탁학교		아현정보산업학교	1998년	실용관악(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댄스 전공포함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고등학교를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비인가대안학교, 학력인정대안학교, 일반계고교위탁학교가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6. 7 대통령령 제22955호)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의 한 형태이다.<sup>44)</sup>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경남예술고등학교<sup>45)</sup>, 김천예술고등학교<sup>46)</sup>,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sup>47)</sup>,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sup>48)</sup>, 울산예술고등학교<sup>49)</sup>가 있다. 이 다섯 학교 중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는 실용음악 전공(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건반)만 선발하고, 경남예술고등학교는 색소폰과 실용작곡, 김천예술고등학교와 울산예술고등학교는 작곡(컴퓨터음악),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관악을 실용음악 전공에 포함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에 따르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

4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322#AJAX> (2014.4.26)

45) 경남예술고등학교 <http://www.karts.hs.kr> (2014.4.21)

46) 김천예술고등학교 <http://www.gcarts.hs.kr> (2014.4.21)

47)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http://www.nwit.hs.kr> (2014.4.21)

48)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http://www.sopa.hs.kr> (2014.4.21)

49) 울산예술고등학교 <http://www.ulsanart.hs.kr> (2014.4.21)

등학교를 말한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 등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고 있다.<sup>50)</sup>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리라아트고등학교<sup>51)</sup>,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sup>52)</sup>,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sup>53)</sup>가 있다. 리라아트고등학교는 음악거점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음악거점학교는 2013년 2학기부터 시작되었고, 일반고에서 소인수 선택 또는 교원 수급, 교실 등 물리적 공간 등의 한계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제2외국어, 직업교육 등의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이다.<sup>54)</sup> 이 세 학교 중에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는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전공을 포함한다.

비인가·학력인정 대안학교<sup>55)</sup>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학교이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을 해주지 않아 검정고시를 치러야 대학진학이 가능하고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검정고시를 치루지 않아도 대학진학이 가능하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마마세이실용음악고등학교<sup>56)</sup>, 서울예술대안학교<sup>57)</sup>, 아이머스실용음악고등학교<sup>58)</sup>가 있으며, 마마세이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는 작곡(컴퓨터음악),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전공을 포함하며, 서울예술대안학교는 작사·작곡, 아이머스실용음악고등학교는 작·편곡 전공을 포함한다.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서울실용음악학교<sup>59)</sup>, 한국예술고등

---

5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322#AJAX> (2014.4.28)

51) 리라아트고등학교 <http://www.lila.hs.kr> (2014.4.21)

52)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http://www.ssls.hs.kr> (2014.4.21)

53)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http://www.wia.hs.kr> (2014.4.21)

54) 서울시교육청 <http://www.sen.go.kr> (2014.4.28)

5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845#0000> (2014.4.28)

56) 마마세이실용음악고등학교 <http://www.mamasayschool.com> (2014.4.21)

57) 서울예술대안학교 <http://www.아이돌스타.kr> (2014.4.21)

58) 아이머스실용음악고등학교 <http://www.imus.co.kr> (2014.4.21)

학교<sup>60)</sup>,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sup>61)</sup>가 있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제외한 서울실용음악학교는 미디, 작·편곡, 색소폰 전공을 포함하며 한국예술고등학교는 재즈피아노, 재즈트럼펫, 재즈트럼본, 재즈오보에, 재즈바이올린, 재즈콘트라베이스, DJ, 실용댄스, 실용작곡, 뮤지컬을 실용음악 전공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반계고교위탁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탁 받아 이들에게 남은 고교 1년 과정 동안 직업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을 한다.<sup>62)</sup> 일반계고교위탁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는 아현정보산업학교<sup>63)</sup>가 있다. 아현정보산업학교는 실용관악(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댄스 전공을 실용음악 전공에 포함한다.

---

59) 서울실용음악학교 <http://www.seoulmusic.hs.kr> (2014.4.21)

60) 한국예술고등학교 <http://www.koreaartschool.com> (2014.4.21)

61)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http://www.hlyes.hs.kr> (2014.4.21)

62) 교육부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1111>  
(2014.4.28)

63) 아현정보산업학교 <http://www.ahyeon.sc.kr> (2014.4.21)

## 5. 연구대상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조사 비교

### 5.1 A고등학교

A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전문 뮤지션을 꿈꾸는 N세대들에게 다양한 음악 이론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공 실기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음악적 기량을 갖춘 21세기 대중문화 선도에 기여하는 전문 음악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A고등학교의 실용음악 전공 교과목은 6과목으로 음악이론(화성학), 연주(합주), 컴퓨터음악, 전공실기, 시창청음, 음악사이다.

### 5.2 A'대학

A'대학의 교육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용음악 이론과 실기의 기본을 익히는 동시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교육하고 있다. 현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중음악을 위해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예술계 전반을 주도해 나갈 예술인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다.

A'대학의 실용음악 전공 교과목은 15과목으로 전공실기, 미디어곡법, 전공악기, 작곡이론, 즉흥연주법, Basic Recording, 앙상블, Music Business, 재즈화성, 학내연주, 재즈역사, 연주발표, 시창청음, 졸업연주, 건반화성기법이다.

### 5.3 B'대학

B'대학의 교육목표는 음악에 대한 무한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탁월한 전문 예술인을 발굴 및 양성하여 음악의 기초 이론과 철저한 실기교육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하는 수준 높은 전문 예능인을 양성하고자 하며, 전문 뮤지션뿐만 아니라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세계 음악시장 흐름에 부

응하여 최신 컴퓨터 기술을 구사하는 창작음악, 영상, 레코딩 등 세계 예술 시장 전반의 비즈니스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B'대학의 실용음악 전공 교과목은 18과목으로 전공실기, 리듬편곡법, 실용음악화성학, 음악감상법, 시창청음, 음악사, 합주실기, 실용음악개론, 레코딩실습, 재즈대위법, 컴퓨터음악, 영상음악실기, 클래식피아노, 즉흥연주기법, 실용음악 작곡법, 실용음악 편곡법, 악기론, 발성과 발음이다.

#### 5.4 C'대학

C'대학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립형 예술가로 양성하는 것으로 5가지 양성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격과 교양을 갖춘 예술인 양성

둘째,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겸비한 실용음악 전문 연주인 양성

셋째, 산학협력기관의 긴밀한 상호교류를 통한 현장실무형 음악전문 산업인재 양성

넷째,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에 공헌할 음악 인재 양성

다섯째, 세계화, 전문화, 정보화에 적응할 글로벌 음악인 양성이다.

C'대학의 실용음악 전공 교과목은 21과목으로 Emsemble, 즉흥연주기법, Instrumental Group Section, 실용음악편곡법, Jazz시창청음, 싱어송라이터, 기초이론, Music Sybthesis, 레코딩믹싱, Music Management, 전공실기, 실기교육방법론, 실용음악화성학, 고급화성학, 현대화성학, 힙합의 응용 및 개발, 무대연출, 기초이론, 합주실기, 컴퓨터음악, Jazz·Pop 음악사이다.

### 5.5 각 학교의 교육과정 비교

A고등학교와 3개의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교과목의 비교표는 <표-2>와 같다.

<표-2> 각 학교의 전공 교과목 비교

	A 고등학교	A' 대학	B' 대학	C' 대학
공통 과목	시창청음	시창청음	시창청음	Jazz시창청음
	음악사	재즈역사	음악사	Jazz·Pop 음악사
	음악이론 (화성학)	재즈화성	실용음악화성학	실용음악·고급·현대 화성학
	컴퓨터음악 (미디)	미디어곡법	컴퓨터음악	컴퓨터음악
	연주(합주)	앙상블/ 합주실기	합주실기	앙상블/ Instrumental group section/ 합주실기
	전공실기	전공실기	전공실기	전공실기
		Basic Recording	레코딩실습	레코딩믹싱
		즉흥연주법		즉흥연주기법
		Music Business		무대연출/ Music management

			실용음악 작·편곡법	실용음악편곡법
			실용음악개론	기초이론
그 외 과목	X	작곡이론 건반화성기법 연주발표 학내연주 졸업연주	리듬편곡법 영상음악실기 클래식피아노 악기론 재즈대위법 발성과 발음 음악감상법 클래식피아노	싱어송라이터 실기교육방법론 Music Synthesis 힙합의 응용 및 개발

3개 대학의 전공 교과목을 보면 A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과목명은 다르지만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목들을 제외하고 3개의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을 보면 3개 대학에서 공통적인 과목은 레코딩이 각각 A'대학은 Basic Recording, B'대학은 레코딩실습, C'대학은 레코딩믹싱 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2개 대학의 공통적인 과목은 즉흥연주 수업이 A'대학의 즉흥연주법, C'대학의 즉흥연주기법 수업이 있고, 공연예술기획 관련의 수업인 A'대학의 Music Business 수업과 C'대학의 무대연출/Music management 수업이 있다.

작·편곡 관련의 수업인 B'대학의 실용음악 작·편곡법과 C'대학의 실용음악 편곡법 수업이 있으며, 이론 관련의 수업인 B'대학의 실용음악개론과 C'대학의 기초이론 수업이 있다.

전체적으로 A'대학은 다른 B', C'대학보다 연주관련의 과목(양상블, 합주실기, 연주발표, 학내연주, 졸업연주)이 많으며, B'대학은 화성학 관련의 과

목(실용음악화성학, 실용음악 작·편곡법, 리듬편곡법)이 많았고, C'대학 또한 화성학 관련 과목(실용음악화성학, 고급화성학, 현대화성학, 실용음악 편곡법)이 많았다.

### III.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 1. 연구방법 및 절차

##### 1.1 연구대상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전공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고등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여 3개 대학에서 음악관련 전공을 한 남·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SNS로 2014년 3월 29일 배부하였으며, 4월 19일까지 남자 35명, 여자 37명 총 72명의 응답을 받았다.

##### 1.2 연구도구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전공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윤효진(2008)의 “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현장에 대한 분석 연구”<sup>64)</sup>와 안애란(2010)의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구-서울시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sup>65)</sup>의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기초조사 4문항을 제외하고 총 25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 문항 구성은 <표-3>과 같다.

<표-3> 설문지 문항 구성

구성지표	설문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기초조사	성별, 전공, 진학이유	3	1-3
고등학교	전공실기, 이론, 보통교과	3	4-6

64) 윤효진(2008). 예술 고등학교 음악교육현장에 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65) 안애란(2010).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구-서울시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수업에 대한 내용	수업 시간의 만족도		
	실기, 이론수업시간의 비중	2	7-8
	음악적 지식 향상 여부	2	9-10
대학 수업에 대한 내용	전공과목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14	11-24
	고등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는 과목	1	25
사교육	사교육 여부	1	26
	과목	1	27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1	28
느낀점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대해	1	29

### 1.3 연구분석방법

구글 설문 프로그램(google doc)의 결과자료를 토대로 엑셀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자료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SPSS 18.0 Version으로 교차분석 pearson 카이제곱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하면서 각 전공별로 대답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문항별로 인원수 비율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드럼 전공 학생이 8명이고 보컬 전공 학생이 28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이 드럼 전공 5명

(62.5%), 보컬 전공 14명(50.0%)이면 인원수로는 보컬 전공이 많지만 백분율로 보았을 때는 드럼 전공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2.1 전체·전공별 결과

#### 2.1.1 기초조사

설문에 응답한 인원수는 총 72명(100.0%)이며, 전공으로는 기타 11명(15.3%), 건반 17명(23.6%), 베이스 8명(11.1%), 드럼 8명(11.1%), 보컬 28명(38.9%)이다.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희망으로 진학한 경우가 87.5%로 제일 많았고, 친구의 권유로 진학한 경우가 6.9%, 대학진학과 부모님의 권유로 진학한 경우가 2.8%로 나왔다(표-4).

<표-4>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이유

본인희망	63명(87.5%)
친구권유	5명(6.9%)
대학진학	2명(2.8%)
부모님의 권유	2명(2.8%)
기타	0명(0.0%)

### 2.1.2 고등학교 수업에 대한 내용

고등학교 수업에 대한 내용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 있어서 만족도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p>.05$ ).

전공실기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는 30.6%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전공실기수업의 양이 많지만 31.9%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5).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5> 전체·전공별 전공실기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만족	빈도	1	1	1	1	0	4
	전공 중 %	9.1%	5.9%	12.5%	12.5%	0.0%	5.6%
만족	빈도	4	5	2	3	4	18
	전공 중 %	36.4%	29.4%	25.0%	37.5%	14.3%	25.0%
보통	빈도	3	6	4	3	11	27
	전공 중 %	27.3%	35.3%	50.0%	37.5%	39.3%	37.5%
불만족	빈도	3	5	1	1	13	23
	전공 중 %	27.3%	29.4%	12.5%	12.5%	46.4%	31.9%
매우 불만족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공이론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50%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15.3%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6).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건반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6> 전체·전공별 전공이론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만족	빈도	2	1	1	1	4	9
	전공 중 %	18.2%	5.9%	12.5%	12.5%	14.3%	12.5%
만족	빈도	2	7	3	2	13	27
	전공 중 %	18.2%	41.2%	37.5%	25.0%	46.4%	37.5%
보통	빈도	6	5	3	4	7	25
	전공 중 %	54.5%	29.4%	37.5%	50.0%	25.0%	34.7%
불만족	빈도	1	4	1	1	4	11
	전공 중 %	9.1%	23.5%	12.5%	12.5%	14.3%	15.3%
매우 불만족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통교과(국어, 영어)와 음악 전공 교과의 수업 비율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서는 47.2%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25.0%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7).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건반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베이스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7> 전체·전공별 보통교과와 음악 전공 교과의 수업 비율 만족도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만족	빈도	2	3	1	2	6	14
	전공 중 %	18.2%	17.6%	12.5%	25.0%	21.4%	19.4%
만족	빈도	3	6	2	1	8	20
	전공 중 %	27.3%	35.3%	25.0%	12.5%	28.6%	27.8%
보통	빈도	3	3	2	3	9	20
	전공 중 %	27.3%	17.6%	25.0%	37.5%	32.1%	27.8%
불만족	빈도	2	2	3	1	3	11
	전공 중 %	18.2%	11.8%	37.5%	12.5%	10.7%	15.3%
매우 불만족	빈도	1	3	0	1	2	7
	전공 중 %	9.1%	17.6%	0.0%	12.5%	7.1%	9.7%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음악수업에서 실기와 이론 중 비중이 더 커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72.2%의 학생들이 실기수업이라고 하였고, 2.8%의 학생들이 이론수업, 18.1%의 학생들이 동등, 6.9%의 학생들이 상관없다고 대답하였다(표-8). 전공별로 보면 실기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보컬 전공이 많았고, 이론과 동등 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기타 전공이 많았으며, 상관없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베이스 전공이 많았다.

<표-8> 전체·전공별 실기와 이론의 비중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실기	빈도	6	11	6	6	23	52
	전공 중 %	54.5%	64.7%	75.0%	75.0%	82.1%	72.2%
이론	빈도	1	0	0	0	1	2
	전공 중 %	9.1%	0.0%	0.0%	0.0%	3.6%	2.8%
동등	빈도	4	4	1	2	2	13
	전공 중 %	36.4%	23.5%	12.5%	25.0%	7.1%	18.1%
상관 없음	빈도	0	2	1	0	2	5
	전공 중 %	0.0%	11.8%	12.5%	0.0%	7.1%	6.9%
기타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8>에서 실기수업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실용음악 대학 입시는 실기의 비중이 크고 실기를 열심히 해야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론수업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실기도 중요하지만 실기를

위해서 이론적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연주를 하거나 악보를 분석할 때 더 나은 해석으로 연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수업의 비중이 커야 한다고 하였다.

음악 전공과목을 통해 음악적 지식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4.7%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2.8%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9).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건반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9> 전체·전공별 음악 전공과목으로 인한 음악적 지식 향상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4	5	3	1	10	23
	전공 중 %	36.4%	29.4%	37.5%	12.5%	35.7%	31.9%
그렇다	빈도	5	10	4	5	14	38
	전공 중 %	45.5%	58.8%	50.0%	62.5%	50.0%	52.8%
보통	빈도	2	2	1	1	3	9
	전공 중 %	18.2%	11.8%	12.5%	12.5%	10.7%	12.5%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1	1	2
	전공 중 %	0.0%	0.0%	0.0%	12.5%	3.6%	2.8%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9>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되었고, 많은 경험들과 활동을 통해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수업을 배우지 않은 것 보다는 도움이 되고 지식이 향상될지 모르지만, 수준이 동등하지 않은 학생들과의 수업에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음악적 지식이 향상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 2.1.3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이 대학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이 대학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6개의 과목 시창청음, 음악사, 음악이론(화성학), 컴퓨터음악(미디), 연주(합주), 전공실기 중 음악이론(화성학) 과목만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있고( $p>.05$ ), 다른 5개의 과목들은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p>.05$ ).

시창청음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65.3%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4.2%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10).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기타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베이스와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10> 전체·전공별 시창청음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4	5	2	3	11	25
	전공 중 %	36.4%	29.4%	25.0%	37.5%	39.3%	34.7%

그렇다	빈도	5	4	2	1	10	22
	전공 중 %	45.5%	23.5%	25.0%	12.5%	35.7%	30.6%
보통	빈도	2	7	3	3	7	22
	전공 중 %	18.2%	41.2%	37.5%	37.5%	25.0%	30.6%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1	1	1	0	3
	전공 중 %	0.0%	5.9%	12.5%	12.5%	0.0%	4.2%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0>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고등학교에서 수업한 내용 그대로 대학 수업에서 배우고 있으며, 박자 세는 법 같은 기초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수업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수업의 난이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음악사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52.8%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고, 22.2%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11).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건반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11> 전체·전공별 음악사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1	5	1	0	2	9
	전공 중 %	9.1%	29.4%	12.5%	0.0%	7.1%	12.5%
그렇다	빈도	2	3	0	1	1	7
	전공 중 %	18.2%	17.5%	0.0%	12.5%	3.6%	9.7%
보통	빈도	3	5	2	1	7	18
	전공 중 %	27.3%	29.4%	25.0%	12.5%	25.0%	25.0%
그렇지 않다	빈도	3	1	3	4	11	22
	전공 중 %	27.3%	5.9%	37.5%	50.0%	39.3%	30.6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2	3	2	2	7	16
	전공 중 %	18.2%	17.6%	25.0%	25.0%	25.0%	22.2%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1>에서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실기가 중요하므로 음악사 같은 이론 수업은 중간·기말고사를 보기 위한 과목이었을 뿐 대학에 가서 배우는 음악사 수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배우는 수업보다는 한번이라도 배우고 듣는 수업이라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음악이론(화성학)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59.7%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5.6%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12).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61으로써 유의수준 .05보다 크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음악이론(화성학)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05$ ).

<표-12> 전체·전공별 음악이론(화성학)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2	4	2	3	3	14
	전공 중 %	18.2%%	23.5%	25.0%	37.5%	10.7%	19.4%
그렇다	빈도	3	5	1	2	18	29
	전공 중 %	27.3%	29.4%	12.5%	25.0%	64.3%	40.3%
보통	빈도	6	8	4	1	6	25
	전공 중 %	54.5%	47.1%	50.0%	12.5%	21.4%	34.7%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1	1	2
	전공 중 %	0.0%	0.0%	0.0%	12.5%	3.6%	2.8%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1	1	0	2
	전공 중 %	0.0%	0.0%	12.5%	12.5%	0.0%	2.8%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 제곱=25.560( $p=.061$ )

\*  $p<.05$

<표-12>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더 어렵지만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으로 기초가 확립되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음악이론(화성학)의 경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을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난이도 높은 응용적인 부분에서도 이해하기가 수월하다고 하였다.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에 있어 시험을 위한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 수업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컴퓨터음악(미디)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57.0%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22.2%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13).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베이스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13> 전체·전공별 컴퓨터음악(미디)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5	6	1	2	8	22
	전공 중 %	45.5%	35.3%	12.5%	25.0%	28.6%	30.6%
그렇다	빈도	2	4	2	1	10	19
	전공 중 %	18.2%	23.5%	25.0%	12.5%	35.7%	26.4%
보통	빈도	3	3	2	4	3	15
	전공 중 %	27.3%	17.6%	25.0%	50.0%	10.7%	20.8%

그렇지 않다	빈도	1	2	1	1	4	9
	전공 중 %	9.1%	11.8%	12.5%	12.5%	14.3%	12.5%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2	2	0	3	7
	전공 중 %	0.0%	11.8%	25.0%	0.0%	10.7%	9.7%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3>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기초적인 부분만 알고 있어도 전혀 수업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 보다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의 컴퓨터음악(미디) 수업과 대학에서의 수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주(합주)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84.7%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5.6%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14).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기타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14> 전체·전공별 연주(합주)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7	6	3	6	16	38
	전공 중 %	63.6%	35.3%	37.5%	75.0%	57.1%	52.8%

그렇다	빈도	2	9	4	2	6	23
	전공 중 %	18.2%	52.9%	50.0%	25.0%	21.4%	31.9%
보통	빈도	1	1	1	0	4	7
	전공 중 %	9.1%	5.9%	12.5%	0.0%	14.3%	9.7%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1	1	0	0	2	4
	전공 중 %	9.1%	5.9%	0.0%	0.0%	7.1%	5.6%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4>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연주가 다른 전공자들과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많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연주를 하면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연주를 하면서 함께하는 팀원들의 태도와 단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연주 수업에 큰 영향을 끼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전공실기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69.4%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18.1%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15).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베이스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15> 전체·전공별 전공실기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1	3	3	3	8	18
	전공 중 %	9.1%	17.6%	37.5%	37.5%	28.6%	25.0%
그렇다	빈도	7	10	4	2	9	32
	전공 중 %	63.6%	58.8%	50.0%	25.0%	32.1%	44.4%
보통	빈도	2	1	1	2	3	9
	전공 중 %	18.2%	5.9%	12.5%	25.0%	10.7%	12.5%
그렇지 않다	빈도	1	2	0	1	5	9
	전공 중 %	9.1%	11.8%	0.0%	12.5%	17.9%	12.5%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1	0	0	3	4
	전공 중 %	0.0%	5.9%	0.0%	0.0%	10.7%	5.6%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5>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실기수업은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난이도 높은 수업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수업이었고, 개개인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룹수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대학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전공 수업이 대학 수업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75.0%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5.6%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16).

전공별로 보면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기타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16> 전체·전공별 고등학교 전공 수업이 대학 수업에 미친 영향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4	5	1	3	7	20
	전공 중 %	36.4%	29.4%	12.5%	37.5%	25.0%	27.8%
그렇다	빈도	5	7	5	3	14	34
	전공 중 %	45.5%	41.2%	62.5%	37.5%	50.0%	47.2%
보통	빈도	2	4	2	2	4	14
	전공 중 %	18.2%	23.5%	25.0%	25.0%	14.3%	19.4%
그렇지 않다	빈도	0	1	0	0	1	2
	전공 중 %	0.0%	5.9%	0.0%	0.0%	3.6%	2.8%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2	2
	전공 중 %	0.0%	0.0%	0.0%	0.0%	7.1%	2.8%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도움이 된 과목으로는 연주(합주)가 47.2%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창청음과 전공실기가 19.4%, 음악이론(화성학)이 11.1%, 컴퓨터음악(미디)이 2.8%, 음악사가 0.0%로 나왔다(표-17).

전공별로 보면 시창청음이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음악사는 없으며, 음악이론(화성학)과 컴퓨터음악(미디)이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건반, 연주(합주)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드럼, 전공실기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기타를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17> 전체·전공별 가장 도움이 된 과목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시창 청음	빈도	2	3	0	0	9	14
	전공 중 %	18.2%	17.6%	0.0%	0.0%	32.1%	19.4%
음악사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음악 이론 (화성학)	빈도	1	4	1	0	2	8
	전공 중 %	9.1%	23.5%	12.5%	0.0%	7.1%	11.1%
컴퓨터 음악 (미디)	빈도	0	1	0	0	1	2
	전공 중 %	0.0%	5.9%	0.0%	0.0%	3.6%	2.8%

연주 (합주)	빈도	5	5	6	6	12	34
	전공 중 %	45.5%	29.4%	75.0%	75.0%	42.9%	47.2%
전공실기	빈도	3	4	1	2	4	14
	전공 중 %	27.3%	23.5%	12.5%	25.0%	14.3%	19.4%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등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는 과목에 대한 질문에서는 작사&작곡실습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레코딩실습이 40.3%, 부전공과 즉흥연주기법이 37.5%, 기초리듬연구가 31.9%로 나왔다(표-18).

<표-18> 고등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는 과목(중복응답)

부전공	27명(37.5%)	지휘법	2명(2.8%)
합창	9명(12.5%)	홈레코딩실습	18명(25.0%)
음악분석	13명(18.1%)	스트링편곡법	11명(15.3%)
음악형식	5명(6.9%)	타악기연구	2명(2.8%)
레코딩실습	29명(40.3%)	기초리듬연구	23명(31.9%)

영상음악	2명(2.8%)	즉흥연주기법	27명(37.5%)
음반프로덕션	7명(9.7%)	국악의이해	5명(6.9%)
재즈화성	9명(12.5%)	대중음악사	13명(18.1%)
보이스레코딩	16명(22.2%)	영화음악	11명(15.3%)
작사&작곡실습	34명(47.2%)	기타	0명(0.0%)

#### 2.1.4 사교육

사교육에 대한 내용을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교육기관에서의 음악 경험 여부와 배운 과목의 도움 여부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p>.05$ ).

학교 외 사교육기관에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4.4%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였고, 5.6%의 학생들이 없다고 하였다(표-19).

전공별로 보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기타, 베이스, 드럼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표-19> 전체·전공별 사교육기관에서 음악 경험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있다	빈도	11	16	8	8	25	68
	전공 중 %	100.0%	94.1%	100.0%	100.0%	89.3%	94.4%
없다	빈도	0	1	0	0	3	4
	전공 중 %	0.0%	5.9%	0.0%	0.0%	10.7%	5.6%
전체	빈도	11	17	8	8	28	72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교육기관에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한 94.4%의 학생들이 배운 과목은 전공실기가 8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학이 26.5%, 시창 청음이 16.2%, 연주(합주)가 2.9%로 나왔다(표-20).

<표-20> 전체·전공별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중복응답)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전공 실기	빈도	11	14	8	8	18	59
	전공 중 %	100.0%	93.8%	100.0%	100.0%	72.0%	86.8%
연주 (합주)	빈도	1	0	0	1	0	2
	전공 중 %	9.1%	0.0%	0.0%	12.5%	0.0%	2.9%
시창 청음	빈도	3	2	3	2	1	11
	전공 중 %	27.3%	12.5%	37.5%	25.0%	4.0%	16.2%
화성학	빈도	2	8	1	1	6	18
	전공 중 %	18.2%	50.0%	12.5%	12.5%	24.0%	26.5%
기타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11	16	8	8	25	68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32.4%

학교에서도 같은 과목을 배우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교육에도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이외의 사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수업으로는 모자라서 보충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의 수업이 너무 빨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수업을 따라가려고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79.4%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학생들은 0%였다(표-21). 전공별로 보면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는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없다.

<표-21> 전체·전공별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의 도움 여부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매우 그렇다	빈도	5	8	3	2	16	34
	전공 중 %	45.5%	50.0%	37.5%	25.0%	64.0%	50.0%
그렇다	빈도	2	4	2	4	8	20
	전공 중 %	18.2%	25.0%	25.0%	50.0%	32.0%	29.4%
보통	빈도	4	4	3	2	1	14
	전공 중 %	36.4%	25.0%	37.5%	25.0%	4.0%	20.6%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0	0
	전공 중 %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11	16	8	8	25	68
	전공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은 학교와 달리 배우는 학생의 수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2.2 학교별 결과

### 2.2.1 기초조사

설문에 응답한 인원수는 총 72명(100.0%)이며, 학교별로의 인원과 각 학교의 전공인원은 <표-22>와 같다.

<표-22> 각 학교별 전체인원과 전공인원수

		전공					전체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보컬	
대학교	A'	5	10	4	3	8	30
	B'	2	4	2	3	7	18

	C'	4	3	2	2	13	24
전체		11	17	8	8	28	72

### 2.2.2 고등학교 수업에 대한 내용

전공실기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를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68.0%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83.3%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87.5%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표-23).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만족도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 < .01$ ).

<표-23> 학교별 전공실기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만족	빈도	4	0	0	4
	대학교 중 %	13.3%	0.0%	0.0%	5.6%
만족	빈도	17	1	0	18
	대학교 중 %	56.7%	5.6%	0.0%	25.0%
보통	빈도	9	15	3	27
	대학교 중 %	30.0%	83.3%	12.5%	37.5%
불만족	빈도	0	2	21	23
	대학교 중 %	0.0%	11.1%	87.5%	31.9%
매우	빈도	0	0	0	0

불만족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76.106(p=.000\*\*)

\*\*p<.01

전공이론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를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90.0%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55.6%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50%가 보통, 41.7%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24).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만족도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01).

<표-24> 학교별 전공이론수업의 양에 대한 만족도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만족	빈도	9	0	0	9
	대학교 중 %	30.0%	0.0%	0.0%	12.5%
만족	빈도	18	7	2	27
	대학교 중 %	60.0%	38.9%	8.3%	37.5%
보통	빈도	3	10	12	25
	대학교 중 %	10.0%	55.6%	50.0%	34.7%
불만족	빈도	0	1	10	11
	대학교 중 %	0.0%	5.6%	41.7%	15.3%

매우 불만족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47.884(p=.000\*\*)

\*\*p<.01

보통교과(국어, 영어)와 음악 전공 교과의 수업 비율에 대한 만족도를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93.3%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50.0%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62.5%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25).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만족도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01).

<표-25> 학교별 보통교과와 음악 전공 교과의 수업 비율 만족도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만족	빈도	14	0	0	14
	대학교 중 %	46.7%	0.0%	0.0%	19.4%
만족	빈도	14	6	0	20
	대학교 중 %	46.7%	33.3%	0.0%	27.8%
보통	빈도	2	9	9	20
	대학교 중 %	6.7%	50.0%	37.5%	27.8%
불만족	빈도	0	3	8	11
	대학교 중 %	0.0%	16.7%	33.3%	15.3%

매우 불만족	빈도	0	0	7	7
	대학교 중 %	0.0%	0.0%	29.2%	9.7%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62.877(p=.000\*\*)

\*\*p<.01

음악수업에서 실기와 이론 중 비중이 더 커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100.0%가 실기라고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77.7%가 실기라고 대답하였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도 있었고, C'대학의 학생들은 41.7%가 동등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33.3%가 실기, 20.8%가 상관없음으로 다양한 의견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표-26).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실기와 이론의 비중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01).

<표-26> 학교별 실기와 이론의 비중

		대학교			전체
		A'	B'	C'	
실기	빈도	30	14	8	52
	대학교 중 %	100.0%	77.8%	33.3%	72.2%
이론	빈도	0	1	1	2
	대학교 중 %	0.0%	5.6%	4.2%	2.8%
동등	빈도	0	3	10	13
	대학교 중 %	0.0%	16.7%	41.7%	18.1%

상관 없음	빈도	0	0	5	5
	대학교 중 %	0.0%	0.0%	20.8%	6.9%
기타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 제곱=32.654(p=.000\*\*)

\*\*p<.01

음악 전공과목을 통해 음악적 지식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 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과 B'대학의 학생들은 100.0%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C'대학의 학생들은 54.2%가 긍정적, 8.3%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27).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음악적 지식 향상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p<.01).

<표-27> 학교별 음악 전공과목으로 인한 음악적 지식 향상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21	2	0	23
	대학교 중 %	70.0%	11.1%	0.0%	31.9%
그렇다	빈도	9	16	13	38
	대학교 중 %	30.0%	88.9%	54.2%	52.8%
보통	빈도	0	0	9	9
	대학교 중 %	0.0%	0.0%	37.5%	12.5%

그렇지 않다	빈도	0	0	2	2
	대학교 중 %	0.0%	0.0%	8.3%	2.8%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53.118(p=.000\*\*)

\*\*p<.01

### 2.2.3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이 대학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

시창청음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96.6%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44.4%가 보통, 55.6%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33.3%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12.5%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28).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시창청음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01).

<표-28> 학교별 시창청음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22	3	0	25
	대학교 중 %	73.3%	16.7%	0.0%	34.7%

그렇다	빈도	7	7	8	22
	대학교 중 %	23.3%	38.9%	33.3%	30.6%
보통	빈도	1	8	13	22
	대학교 중 %	3.3%	44.4%	54.2%	30.6%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3	3
	대학교 중 %	0.0%	0.0%	12.5%	4.2%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42.677(p=.000\*\*)

\*\*p<.01

음악사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다른 과목에 비해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다. A'대학의 학생들은 53.3%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지만 6.7%는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66.7%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100.0%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29).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음악사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01).

<표-29> 학교별 음악사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9	0	0	9
	대학교 중 %	30.0%	0.0%	0.0%	12.5%
그렇다	빈도	7	0	0	7
	대학교 중 %	23.3%	0.0%	0.0%	9.7%
보통	빈도	12	6	0	18
	대학교 중 %	40.0%	33.3%	0.0%	25.0%
그렇지 않다	빈도	2	12	8	22
	대학교 중 %	6.7%	66.7%	33.3%	30.6%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16	16
	대학교 중 %	0.0%	0.0%	66.7%	22.2%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76.945(p=.000\*\*)

\*\*p<.01

음악이론(화성학)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93.4%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50.0%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58.3%가 보통, 16.6%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30).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음

악이론(화성학)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p < .01$ ).

<표-30> 학교별 음악이론(화성학)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14	0	0	14
	대학교 중 %	46.7%	0.0%	0.0%	19.4%
그렇다	빈도	14	9	6	29
	대학교 중 %	46.7%	50.0%	25.0%	40.3%
보통	빈도	2	9	14	25
	대학교 중 %	6.7%	50.0%	58.3%	34.7%
그렇지 않다	빈도	0	0	2	2
	대학교 중 %	0.0%	0.0%	8.3%	2.8%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2	2
	대학교 중 %	0.0%	0.0%	8.3%	2.8%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41.581( $p=.000^{**}$ )

$**p < .01$

컴퓨터음악(미디어)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96.6%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50.0%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12.5%가 긍정적, 58.4%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31).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컴

퓨터음악(미디어)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 < .01$ ).

<표-31> 학교별 컴퓨터음악(미디어)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22	0	0	22
	대학교 중 %	73.3%	0.0%	0.0%	30.6%
그렇다	빈도	7	9	3	19
	대학교 중 %	23.3%	50.0%	12.5%	26.4%
보통	빈도	1	7	7	15
	대학교 중 %	3.3%	38.9%	29.2%	20.8%
그렇지 않다	빈도	0	2	7	9
	대학교 중 %	0.0%	11.1%	29.2%	12.5%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7	7
	대학교 중 %	0.0%	0.0%	29.2%	9.7%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67.601( $p=.000^{**}$ )

$**p < .01$

연주(합주)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과 B'대학의 학생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지만, C'대학의 학생들은 54.2%가 긍정적, 16.7%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32).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연주(합주)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p < .01$ ).

<표-32> 학교별 연주(합주)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25	12	1	38
	대학교 중 %	83.3%	66.7%	4.2%	52.8%
그렇다	빈도	5	6	12	23
	대학교 중 %	16.7%	33.3%	50.0%	31.9%
보통	빈도	0	0	7	7
	대학교 중 %	0.0%	0.0%	29.2%	9.7%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4	4
	대학교 중 %	0.0%	0.0%	16.7%	5.6%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43.363( $p = .000^{**}$ )

$**p < .01$

전공실기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88.9%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16.7%가 긍정적, 37.5%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33).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전

공실기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p<.01$ ).

<표-33> 학교별 전공실기의 대학 수업 도움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18	0	0	0
	대학교 중 %	60.0%	0.0%	0.0%	0.0%
그렇다	빈도	12	16	4	32
	대학교 중 %	40.0%	88.9%	16.7%	44.4%
보통	빈도	0	2	7	9
	대학교 중 %	0.0%	11.1%	29.2%	12.5%
그렇지 않다	빈도	0	0	9	9
	대학교 중 %	0.0%	0.0%	37.5%	12.5%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4	4
	대학교 중 %	0.0%	0.0%	16.7%	5.6%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72.611( $p=.000^{**}$ )

$**p<.01$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전공 수업이 대학 수업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88.9%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33.3%가 긍정적, 16.6%가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34).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대

학 수업에 미친 영향은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 < .01$ ).

<표-34> 학교별 고등학교 전공 수업이 대학 수업에 미친 영향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20	0	0	30
	대학교 중 %	66.7%	0.0%	0.0%	27.8%
그렇다	빈도	10	16	8	34
	대학교 중 %	33.3%	88.9%	33.3%	47.2%
보통	빈도	0	2	12	14
	대학교 중 %	0.0%	11.1%	50.0%	19.4%
그렇지 않다	빈도	0	0	2	2
	대학교 중 %	0.0%	0.0%	8.3%	2.8%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2	2
	대학교 중 %	0.0%	0.0%	8.3%	2.8%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62.824( $p = .000^{**}$ )

$**p < .01$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도움이 된 과목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시창청음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연주라고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전공실기라고 대답하였다(표-35).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가장 도움이 된 과목의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 < .01$ ).

<표-35> 학교별 가장 도움이 된 과목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시창청음	빈도	13	1	0	14
	대학교 중 %	43.3%	5.6%	0.0%	19.4%
음악사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음악이론 (화성학)	빈도	6	2	0	8
	대학교 중 %	20.0%	11.1%	0.0%	11.1%
컴퓨터 음악 (미디)	빈도	1	1	0	2
	대학교 중 %	3.3%	5.6%	0.0%	2.8%
연주 (합주)	빈도	10	13	11	34
	대학교 중 %	33.3%	72.2%	45.8%	47.2%
전공실기	빈도	0	1	13	14
	대학교 중 %	0.0%	5.6%	54.2%	19.4%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47.375(p=.000\*\*)

\*\*p<.01

#### 2.2.4 사교육

학교 외 사교육기관에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96.7%, B'대학의 학생들은 88.9%, C'대학의 학생들은 95.8%가 사교육기관에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하

였다(표-36).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489으로써 유의수준 .05보다 크므로 사교육기관에서 음악 경험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p>.05$ ).

<표-36> 학교별 사교육기관에서 음악 경험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있다	빈도	29	16	23	68
	대학교 중 %	96.7%	88.9%	95.8%	94.4%
없다	빈도	1	2	1	4
	대학교 중 %	3.3%	11.1%	4.2%	5.6%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제곱=1.429( $p=.489$ )

\*  $p<.05$

사교육기관에서 음악을 배운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 중 A'대학에서는 전공실기가 9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성학이 27.6%였다. B'대학에서도 전공실기가 8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창청음이 31.3%였다. C'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건 전공실기가 73.9%였고, 다음으로 화성학이 34.8%였다(표-37).

<표-37> 학교별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중복응답)

		대학교			전체
		A'	B'	C'	
전공실기	빈도	28	14	17	59
	대학교 중 %	96.6%	87.5%	73.9%	86.8%
연주 (합주)	빈도	0	1	1	2
	대학교 중 %	0.0%	6.3%	4.3%	2.9%
시창청음	빈도	2	5	4	11
	대학교 중 %	6.9%	31.3%	17.4%	16.2%
화성학	빈도	8	2	8	18
	대학교 중 %	27.6%	12.5%	34.8%	26.5%
기타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체	빈도	29	16	23	68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32.4%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대학별로 비교해 본 결과, A'대학의 학생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B'대학의 학생들은 87.6%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C'대학의 학생들은 47.8%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표-38).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사교육기간에서 배운 과목의 도움 여부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 < .01$ ).

<표-38> 학교별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의 도움 여부

		대학교			전체
		A'	B'	C'	
매우 그렇다	빈도	26	5	3	34
	대학교 중 %	89.7%	31.3%	13.0%	50.0%
그렇다	빈도	3	9	8	20
	대학교 중 %	10.3%	56.3%	34.8%	29.4%
보통	빈도	0	2	12	14
	대학교 중 %	0.0%	12.5%	52.2%	20.6%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혀 그렇지 않다	빈도	0	0	0	0
	대학교 중 %	0.0%	0.0%	0.0%	0.0%
전체	빈도	30	18	24	72
	대학교 중 %	100.0%	100.0%	100.0%	100.0%

pearson 카이 제곱=41.881(p=.000\*\*)

\*\*p<.01

### 2.3 느낀 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때 부터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다른 학생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할 수 있는 환경과 일찍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좋고, 습득력이 빠른 시기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다른 친구들보다 음악을 배우는 시간이 많고, 대학을 가는데

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학생들의 음악적 지식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수업이 아쉽고, 전공실기 수업 같은 경우 학생들의 인원수나 교사의 수를 조절해 좀 더 체계적으로 수업했으면 한다고 하였다. 또한 더 많은 교과목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실용음악 전공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교과목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실용음악의 정의와 실용음악 교육의 필요성, 미국과 한국의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를 알아보고, 고등학교 실용음악 교육의 역사와 한국의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실용음악과 전공과목이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의 대학 실용음악 전공과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하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전체·전공별 그리고 대학별로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 35명, 여자 37명 총 72명의 학생들 중 기타 11명, 건반 17명, 베이스 8명, 드럼 8명, 보컬 28명이었으며, 고등학교 전공과목 시창청음, 음악사, 음악이론(화성학), 컴퓨터음악(미디), 연주(합주), 전공실기 총 6개의 과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음악사 과목을 제외한 5개의 과목들은 긍정적인 대답이 50%이상인 반면에 음악사 과목은 부정적인 대답이 50%이상이었다.

전공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악이론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과목은 대학 수업 도움 여부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이론(화성학)은 59.7%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5.6%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전공별로 보면 보컬을 전공한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학생들의 전공은 드럼이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61으로써 유의수준 .05보다 크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만족도에 대한 전공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p>.05$ ).

대학교별 분석 결과를 보면 총 72명의 학생들 중 A'대학 30명, B'대학 18명, C'대학 24명이었다. A'대학 30명 중 전공은 기타 8명, 건반 10명, 베이스 4명, 드럼 3명, 보컬 8명이고, B'대학 18명 중 기타 2명, 건반 4명, 베이스 2명, 드럼 3명, 보컬 7명이었으며, C'대학은 24명 중 기타 4명, 건반 3명, 베이스 2명, 드럼 2명, 보컬 13명이었다.

대학교별 전공과목 6개를 카이제곱 검정을 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써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만족도에 대한 학교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 < .01$ ). 전체적으로 A'대학과 B'대학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대답이 많은 반면에 C'대학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다. 이는 전체 질문에 대한 전공별 답변과 각 대학의 전공별 인원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전공과목 6개 중 음악사 과목만 전체 중 50%이상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고, 전공별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전체과목 중 음악이론 과목만 전공별 차이가 있다고 나왔다. 학교별로 보았을 때는 모든 과목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A'대학과 B'대학은 긍정적인 대답이 많은 반면에 C'대학은 부정적인 대답이 많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실용음악과는 학생들에게 조기음악의 경력을 기르게 해주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음악적 지식을 향상 시키는 것이 아닌 입시 위주의 수업에만 치중되어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실용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용음악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 이에 관한 연구와 자료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실용음악 관련 연구와 자료들은 대학에 치우쳐 있으며 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의 수는 적다.

무분별하게 실용음악과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의 실용음악이 지금보다 더 바르게 교육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고자 하고, 이 연구를 토대로 실용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강모(2011). 국내 실용음악학과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 김아영(2012). 실용음악 교육의 실태 비교 분석 및 발전방향-실용음악 계열 학과의 대학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수(2011). 실용음악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창대(2013). 실용음악 교육과정 현황에 관한 연구-실용음악전공 개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선영(2007). 대학 실용음악 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철홍(2012). “실용음악 교육기관의 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음악과민족, 제44호, pp189-218.
- 박철홍(2008). “실용음악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연구 : 버클리음악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과민족, 제36호. pp.353-390.
- 박철홍(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음악과민족, 제23호. pp.63-93.
- 안애란(2010).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구-서울시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은주, 김선희(2009).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분석”, 음악이론연구, 제14호, pp.61-89.
- 윤희진(2008). 예술 고등학교 음악교육현장에 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분(2002). “1920-30년대의 ‘실용음악’”, **음악과민족**, 제23호, pp.44-62.
- 이에스더(2008). “실용음악교육의 동향과 실천적 과제”, **음악교육공학**, 제7호, pp.133-146.
- 정상일(2009), **실용음악개론**. 서울: 아브라함음악사
- 조성기(2012). “예술고등학교 음악 전공교육의 활성화 방안”, **음악교육공학**, 제14호, pp.41-60.
- 한승희(2013).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연화(2008). **실용음악과 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과 발전방향의 연구-고등학교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정희(2007).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입시경쟁률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경남예술고등학교 <http://www.karts.hs.kr>  
 경희대학교 대학원 <http://gskh.khu.ac.kr>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http://artndesign.khu.ac.kr/08/main.php>  
 교육부 <http://www.moe.go.kr>  
 김천예술고등학교 <http://www.gcarts.hs.kr>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http://www.nwit.hs.kr>  
 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 <http://hompy.dankook.ac.kr/music>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http://hompy.dankook.ac.kr/gdaa>  
 대구예술대학교 <http://www.dgau.ac.kr>  
 동덕여자대학교 <http://www.dongduk.ac.kr>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http://grad.dongduk.ac.kr>  
 동아대학교 <http://www.donga.ac.kr>  
 동아방송예술대학교 <http://www.dima.ac.kr>

동의대학교 영상정보대학원 <http://mvt.deu.ac.kr>  
리라아트고등학교 <http://www.lila.hs.kr>  
마마세이실용음악고등학교 <http://www.mamasayschool.com>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http://ice1.mju.ac.kr>  
부산예술대학 <http://www.busanarts.ac.kr>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http://www.ssls.hs.kr>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http://www.sopa.hs.kr>  
서울시교육청 <http://www.sen.go.kr>  
서울실용음악학교 <http://www.seoulmusic.hs.kr>  
서울예술대안학교 <http://www.아이돌스타.kr>  
서울예술대학교 <http://www.seoularts.ac.kr>  
수원여자대학교 <http://www.awwu.ac.kr>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lle.ssu.ac.kr>  
아이머스실용음악고등학교 <http://www.imus.co.kr>  
아현정보산업학교 <http://www.ahyeon.sc.kr>  
울산예술고등학교 <http://www.ulsanart.hs.kr>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http://www.wia.hs.kr>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http://performarts.ewha.ac.kr>  
중부대학교 대학원 <http://www.joongbu.ac.kr/grad.do>  
청운대학교 <http://home.chungwoon.ac.kr>  
한국예술고등학교 <http://www.koreaartschool.com>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http://www.hlyes.hs.kr>  
한서대학교 <http://www.hanseo.ac.kr>

## ABSTRACT

### **The effect of the applied music course in high school on the major in applied music at college**

Soo Yeon,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how the studies of applied music courses in high school could give impact and applies on students who are in music majored in college. This study will give us very basic but firm information to help us to make improvements for the future students. To help the study, the surveys were taken from the students who graduated with applied music majored in high school and also studies related in music majors at college.

The total surveys were analyzed students with groups of different colleges and groups of different music majors. Total 72 students; (35)male, (37)female took survey. From this group 11 were playing and major in guitar, 17 were in piano, 8 were bass, 28 were vocal, and 8 were playing drums.

Lists of music majors in High School were sight-singing&ear training,

music history, music theory(harmonics), computer music(MIDI), performances(ensemble) and as result, more than 50% of students answered positively for 5 major out of 6 majors that they studies in High School. The only and most negative response was the music history which it came more than 50% of students agreed.

Depends on what major that students take, The survey with chi-squared as well is examined. The results of the 'music theory' came .061, which it was higher than significance level. However, it showed depends on what major that students studies, the course of 'music theory' helped only to certain students. ( $P > .05$ ) Others answered the study wasn't helped much nor finds different.

Students who majored in 'music theory' answered positively, and most of them studied in vocal but who studied in drum answered negatively.

Whoever answered positively quoted, studies that they had in the past weren't based on improvements of their skills but helped more than any students who didn't learn anything at all. However, students who answered negatively responded that studies that they had were more focused on examination of auditions, basic majors such as music history weren't helping much of their studies of now.

Surveys were handed out to three different college students who studies in 6 music related majors.

The collected surveys examined with chi-squared and results of significant probability is .000, which it was less than significancy level .01, satisfaction was different depends on which school they attend.

Students from school A' and B' answered positively but most of

students from school C' answered unlikely.

After all the surveys and analysis, From total 6 majors more than 50% of students are answered negatively on music history.

With chi-squared from the total majors, only music theory help in studies at college and depends on majors what they studies ( $p > .05$ ), and others didn't helped much.

Most of students who responded positively were studied vocal in the past and students who answered negatively were studied in drum. Three different groups of college students, and school A' and school B' answered positively but students from school C' answered unlikely.

The best wishes from this research would be, it is great that they can start early and learn but these studies should be more efficiently. The programs in high schools need 'well' developed and improve so the future of the music industries will be bright.

부록(설문지)

##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교과목이 대학 전공 수업에 미치는 영향

이 설문조사는 석사학위논문에 쓰일 자료로 무기명이며,  
이 연구 목적 외에 어떠한 곳에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수연 드림 -  
\*주관식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성별은?\*

남  여

2. 전공은?\*

3.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이유는?\*

본인희망  친구권유  대학진학  부모님의 권유  기타:

### 고등학교 때 수업에 대한 내용

4. 전공실기수업의 양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 전공이론수업의 양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6. 보통교과(국어,영어)와 음악전공 교과와의 수업 비율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7. 음악수업에서 비중이 더 커야 하는 것은?\*

실기  이론  동등  상관없음  기타:

8. 그 이유는?\*

(앞의 답변에 대한 이유)

9. 음악 전공 과목을 통해 음악적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음악적 지식이란 실기 능력도 포함)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 이유는?\*

(앞의 답변에 대한 이유)

###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이 현재 대학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ex) 고등학교에서 배운 시창청음 수업이 대학 시창청음 수업에 도움이 되는가?

11. 시창청음이 대학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그 이유는?\*

(앞의 답변에 대한 이유)

13. 음악사가 대학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 이유는?\*

(앞의 답변에 대한 이유)

15. 음악이론(화성학)이 대학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그 이유는?\*

(앞의 답변에 대한 이유)

17. 컴퓨터와음악(미디)이 대학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8. 그 이유는?\*

(앞의 답변에 대한 이유)

19. 연주(합주)가 대학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 그 이유는?\*

(앞의 답변에 대한 이유)

21. 전공실기가 대학수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 그 이유는?\*

(앞의 답변에 대한 이유)

23.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전공수업이 대학수업에 영향을 끼쳤는가?\*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도움이 된 과목은?\*

시장정음  음악사  음악이론(화성학)  컴퓨터음악(미디)  연주(합주)  전공실기

25. 고등학교에서 배웠으면 하는 과목은?\*

(복수가능)

부전공  합창  음악분석  합주실기  음악형식  레코딩실습  영상음악  음반프로덕션  재즈화성

보이스레코딩  작사&작곡실습  지휘법  홀레코딩실습  스트링편곡법  타악기연구  기초리듬연구

즉흥연주기법  국악의이해  대중음악사  영화음악  기타:

26. 학교 외 사교육기관에서 음악을 배운적은?\*

있다 (27번으로)  없다 (29번으로)

27.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은?\*

(복수가능)

전공실기  합주(양상블)  시장정음  화성학  기타:

28. 도움이 되었나?\*

(사교육기관에서 배운 과목이)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 마지막으로 설문을 마치며 하고 싶은 말은?\*

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대해서 하고싶은 말을 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